

【 국내금융 뉴스 】

녹색보험(GI), 보험산업의 新성장동력 과제로 선정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녹색보험이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① 친환경농산물손해보상보험('09.4.1판매), ② 녹색증권보험, ③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 ④ 자전거전용보험 등이 있음.

* ①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시 농업인의 신뢰회복 소요 비용 지급, ②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③ 손해발생 시 환경친화 자재 기준으로 개물복구비용을 지급, ④ 자전거로 인한 상해, 사망 등 보장 등이 있으며, 그 외 장기과제로 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非돌발적이고 점진적인 오염사고도 보장)과 ⑥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거래대상인 탄소배출권 계약내용과 실제 감축효과가 미발생시 비용손실을 보장)이 있음.

□ 녹색보험은 보험사에게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활용될 전망이며,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녹색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녹색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은 녹색보험을 보험산업의 새로운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발 여건을 조성 중에 있음.

○ 녹색보험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더불어 상품개발 장려를 위해 '우수 금융신상품'의 평가에서 녹색보험을 우대하는 등 상품개발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4/15)